

기독교 신앙을 가진 어린이집 원장의 폐원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A Qualitative Study of the Closing Experiences of Christian Childcare Center Directors

김 성 원 (Sung-Won Kim)**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ake recommendations to the field by identifying the meaning the calling as an educator among Christian directors who have experienced the closure of a childcare center. To reach this goal, eight Christian directors who had closed their childcare centers within five years at the time of interview were interviewed and their meaning of pedagogy and closure were analyzed. Their operating philosophy and principles were to support young children's healthy minds and bodies, build their healthy character, and raise children to be dreamers in God. The directors also laid out principles for the teachers to behave like teachers and not complain about the center or the directors. The participants' unique programs included Christian education practices, parent education and counseling, simultaneous English, Bible,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waiving fees for families experiencing financial hardship, and practice of warm care. These practices have resulted in parental approval, salvation of unbelievers, filling the shortage of children, and visits from alumni. Reasons cited for closure included financial difficulties in management, reports of child abuse, a context that was not childcare or Christian education in nature, failure to relocate the center due to redevelopment, rent increases, and difficulties in evaluation targeting the director of two childcare centers. After closing, the directors' career paths included wanting to run a daycare center for the elderly, moving to a horticultural therapist, becoming a salaried director, and downsizing from two childcare centers to one,

* 2024년 5월 7일 접수, 5월 31일 최종수정, 6월 11일 게재확정
이 논문은 2024학년도 충신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충신대학교(Chongshin University) 산업교육학부 부교수,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143, sungwon1331@gmail.com

while some experienced the limitations of age. Meanings of closure included experiencing God's care, discipline, and blessings, discovering a new calling, discipline to follow God's lead, and rest.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the researcher proposes social attention to the closure of childcare centers, the implementation of vocational tests for the directors, and transferability to jobs related to their career as a childcare directors. Finally, the researcher suggests that Christian institutions provide education about suffering and programs for overcoming different types of suffering.

Key words: Christian faith, childcare center director, childcare center closures, interview

I. 서론

최근 줄 이은 어린이집의 폐원 사태가 발생하면서 이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원장 및 부모의 사연이 빈번하게 소개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보육통계에 의하면, 2013년에 43,770개소이던 어린이집이 2022년 말에 30,923개소로 줄었다. 상황을 어린이집 유형별로 살펴보면, 민간어린이집은 14,751개소에서 9,726개소로, 가정어린이집은 23,632개소에서 12,109개소로 대폭 줄었다. 반면, 국·공립어린이집은 2,332개소에서 5,801개소로, 직장어린이집은 619개소에서 1,291개소로 증가하였다(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2023). 피해가 가장 큰 유형은 가정어린이집인데, 10년간 폐원한 어린이집 중 가정어린이집이 차지하는 비중이 93.3%에 달한다. 이와 같은 현상의 원인은 가정어린이집의 규모가 작을 뿐 아니라 정부의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정책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조치가 시행되면서 국·공립과 직장, 사회복지법인 등의 공공어린이집이 두 배 이상 증가했기 때문이다(경향신문, 2023. 2. 22). 어린이집 폐원의 원인에 관해서 저출산이 지배적인 견해이기는 하나(경향신문, 2023. 11. 29 ; 머니투데이, 2023. 5. 8), 재정 문제, 보조금 부정수급이나 아동학대 등의 법령위반, 임대차계약 만료, 국공립 전환, 재개발 등 다양한 부차적인 원인도 존재한다(국민권익위원회, 2020: 5).

어린이집 폐원으로 인해 운영자인 원장이 가장 큰 타격을 받으나 부모들 역시 새 어린이집을 구하는 역할을 오롯이 감당해야 하고 먼 곳에 있는 어린이집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내해야 한다. 따라서 약화된 보육 인프라는 저출생 심화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2023. 11. 29 ; KBS 뉴스, 2023. 2. 24). 지자체는 어린이집 폐원 대안에 해당하는 제도를 시행하는데, 보건복지부의 경우 2024년 1월부터 민간·가정어린이집의 0-2세 영아반 유지를 지원하는 '영아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4. 1. 9). 서울시에서는 2024년부터 '동행어린이집' 제도를 시행하는데, 이 제도는 현원 감소로 운영의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에 재정지원, 환경개선, 보조인력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실천이다(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2023. 11. 29).

우리나라 보육시설은 1990년도 1,919개소에서 시작해 급속한 양적 성장을 이루었으며, 영유아보호법 제정 및 개정, 평가인증제 도입, 표준보육과정 개발 등의 노력을 통해 질적 개선 또한 이루었다. 초기 보육은 저소득층 가정의 어머니 부재로 인해 기본적인 돌봄을 받을 수 없는 영유아를 주 대상으로 하였으나(전윤숙, 2016)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여성의 사회참여가 높아지고 다양한 가정 유형이 나타나면서 보육은 특정 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성을 실현하는 국가 제도로 자리매김하였다(노경숙 외, 2023 ; 전윤숙, 2016). 시대적 변화

와 함께 발전한 어린이집은 수요 대비 공급 부족으로 인해 민간 시설을 활용해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개인사업체인 동시에 공익적 사회복지시설이라는 특수성을 지닌다. 또한 영유아보육, 보수교육,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급식관리, 차량안전관리 등의 다양한 법적 의무를 수행하는 성격도 갖는다(국민권익위원회, 2020: 3).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책임지는 원장은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지도·감독하며 영유아를 보육”하는 자로(국가법령정보센터) 보건복지부에서는 그 역할을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기타 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시행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2024: 62). 실제로 어린이집 원장은 현장에서 국가 보육정책과 어린이집 설립 유형의 특성을 반영한 운영, 수요자 중심의 부모교육 실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며 교사 관리, 멀티플레이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노경숙 외, 2023). 어린이집 원장들이 생각하는 자신들의 이미지는 ‘다재다능’한(37.8%), ‘사랑, 온화함’(17.8%), ‘인내, 희생’(14.4%), ‘조율, 화합의’(12.2%) 이미지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소수이기는 하나 ‘비난 대상’(5.6%), ‘방향 설정’(4.4%), ‘지역 협력’(3.3%), ‘불특정 잡무’(3.3%) ‘월급 조달’(2.2%)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로도 표현되었다(전윤숙, 2016).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다재다능’한, ‘불특정 잡무’, ‘멀티플레이어의 역할’ 등을 통해 유추해 볼 때 어린이집 원장은 다양한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어린이집이 기능하도록 하는 책임자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 현장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불투명한 미래, 폐원 위기에 대한 두려움, 이직과 퇴직 사이의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협조적인 교사로 인한 갈등, 자신의 자녀만 생각하는 부모와의 갈등, 안전사고로 인한 부모와의 다툼, 수시로 CCTV 열람을 요청하는 부모와의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신은미, 2023).

다양한 업무와 갈등을 경험하는 어린이집 원장 중에서 기독교인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한 본 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업과 소명에 관한 기독교의 가르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교회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섬김에 동참하라는 소명을 주시는데, 이 소명에는 사역, 직업, 역할, 일, 재능 등이 포함된다(Stevens, 2018: 49-50). 이 중 직업에 대해 Berg는 세 가지로 정의한다. 첫째, 직업은 하나님의 일을 위한 환경이다. 둘째,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에 대해 죽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에 직업은 영적 전쟁의 배경이 된다. 셋째, 직업은 인간 번성을 위한 환경이다. 하나님은 소명을 통해 우리에게 목적, 자유, 안전, 번영을 제공하시는데 이 네 가지 요소를 통해 인간은 번성할 수 있다(2020: 8-9). Stevens는 소명의 발견뿐 아니라 지킴을 강조했던 청교도인 Perkins를 인용하며 그가 제안했던 소명을 지키는 실제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함으로써 고난의 시기에도 하나님의 소명을 확신

해야 한다. 둘째, 그릇된 이유를 가지고 소명에 접근한다면 돌이켜야 한다. 셋째, 사람과 일 두 가지 모두 성화 되기를 바라야 한다. 넷째, 자신의 특정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로 여기기 위해 일을 하려는 유혹을 뿌리쳐야 한다. 다섯째, 이 땅이 아닌 하늘을 열망함으로써 애정을 쏟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난이 찾아올 때도 계속 소명을 유지해야 한다(2018: 62-63). 요약하면, 기독교인의 직업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을 섬기는 소명을 이루는 방편으로 직업 수행 시 자신을 부인하고 고난을 인내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직업을 수행하면서 경험하는 고난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나, 실직으로 인한 어려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는 외생적으로 발생한 비자발적 실업의 경험이 주관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특별히 남성들과 장기근속 근로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재취업은 실직으로 인한 건강의 악화를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홍정립, 2022). 실직을 경험한 중년남성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건강 상태와 월평균 가구 소득, 실업 횟수, 취업 관련 자격증, 가족 지지로 나타났다(조성순·정소희, 2023). 20년 전의 IMF 경제 위기가 개인과 가구에 끼친 영향을 생애사적 접근으로 살핀 연구에서 경제위기 상황은 연구참여자들에게 신속한 적응을 요구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이들은 불안정, 주변화 경험 그리고 질병에 노출되었다. 20년 전에 경험한 경제위기는 개인과 가족에게 실패, 시도와 적응이 혼재된 불안정한 삶의 출발점이었고 그 영향은 세대를 넘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노혜진 외, 2019). 선행연구의 결과는 실직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실직으로 인해 가족들이 함께 경험하는 실패와 불안정은 오랜 시간 지속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영유아교육 분야의 선결 과제 중 하나인 어린이집 폐원을 경험한 원장들의 이야기를 분석한다. 특별히 본 연구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원장들의 역할과 어린이집 폐원에 관한 이야기를 기독교 신앙과 세계관 측면에서 살피는 차별성을 보이게 될 것이다. 연구의 필요성과 특수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RISS(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에 ‘어린이집 폐원’과 ‘어린이집 폐쇄’를 키워드로 입력하여 검색한 결과, 유재언(2015)의 연구물 한 편이 검색되었다. 이처럼 어린이집 폐원에 관한 연구는 누군가의 아픔을 전제로 한 특수성과 연구대상(참여자)의 제한성을 갖기에 수월하지 않은 영역임을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아울러 저명한 신학자인 Volf는 일의 본질적 중요성과 새로운 정보 사회에서 일의 위기에 반응할 필요로 인해 ‘일의 신학’이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일의 신학의 주요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의 성격과 역할뿐 아니라 개인이 일을 이해하는 방식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보았다(2022: 118, 83). 선행연구 분석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어린이집 폐원에 관한 선행연구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연구의 현실과 일에 대한 기독교인의 해석이 필요하다는 Volf의 제안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어린이집 원장

의 운영 및 폐원 경험 그리고 신앙에 기초한 직업적 소명에 관한 의미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에 기초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기독교 신앙을 가진 어린이집 원장의 교육관은 무엇인가?

연구 문제 2. 기독교 신앙을 가진 어린이집 원장의 폐원 경험 및 의미는 어떠한가?

II. 연구 방법

1. 연구참여자

본 연구자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어린이집 원장의 교육관 및 폐원 경험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하여 2022년 6월부터 2023년 8월 사이에 연구참여자 8명을 면담하였다. 연구참여자 선정은 연구 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을 선정하는 세평적 사례 선정(reputational case selection)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연구참여자 선정 기준은 인터뷰 시점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폐원 경험이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하는 기독교인이다. 연구참여자의 연령은 48세에서 65세였으며 폐원의 원인은 무리한 임대료 인상부터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어려움까지 다양했다. 연구참여자 및 폐원 어린이집에 관한 기본 정보는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참여자 및 폐원 어린이집 정보

구분	연령	경력	직분	어린이집 유형	어린이집 규모	지역	폐원 이유	폐원 시기
연구참여자 1	65세	14년	권사	가정	20명	인천	코로나 및 구도시화로 인한 원아모집의 어려움	2021
연구참여자 2	57세	26년	사모	민간	51명	김포	재개발로 인한 이전의 어려움	2022
연구참여자 3	56세	20년	집사	가정	20명	서울	아동학대 신고, 운영의 어려움	2022
연구참여자 4	55세	20년	사모	민간	74명	산본	기독교교육 실천과 운영의 어려움	2020
연구참여자 5	54세	22년	권사	민간	36명	의정부	인터넷 카페에 비방 글 게시	2017
연구참여자 6	53세	17년	집사	가정	20명	용인	국공립 신설로 인한 운영의 어려움	2022
연구참여자 7	51세	16년	집사	가정	13명	평택	2개소 운영자를 타겟으로 한 평가	2021
연구참여자 8	48세	22년	집사	가정	20명	서울	무리한 월세 인상	2019

2. 자료 수집

면담 시작 전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들에게 연구의 의도와 목적, 연구참여자의 역할 그리고 연구 진행 과정 등에 관한 안내를 하고 연구 참여 의사를 확인하였다. 면담 당일에는 연구 제목, 목적, 방법, 연구 참여의 이익 및 불이익, 개인정보 및 면담 내용의 비밀 보장, 자발적 참여와 철회 가능성을 기록한 연구 참여 동의서를 제시하여 동의를 받았다. 면담 시간은 57분에서 2시간 14분까지로, 연구 참여자 4, 6, 8과는 2회 그리고 나머지 연구참여자와는 1회 만나 면담 내용을 녹음하면서 진행하였고, 전사한 자료는 A4 용지 95매 분량이었다. 전사 과정에서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연락하여 확인받았다.

연구자는 경험의 의미가 드러나도록 폐원 자체에 관한 질문 외에 개인적 배경 및 교육 철학과 운영 경험에 관하여 질문하였다. 구체적으로 자신에 대한 소개, 어린이집 운영의 배경, 어린이집 운영 철학 또는 원리, 운영 시 특별한 경험, 폐원 경험(원인, 과정, 결과), 폐원 이후 경험(해석, 어려움 극복 방법, 직업 재기)과 진로에 관한 바람이나 기도제목 등이 그 내용이다.

3. 자료 분석

면담과 전사 과정을 마친 자료는 반복적 비교분석법으로 분석하였다. 반복적 비교분석법은 질적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자료 분석의 방법으로, 이 방법은 연구 문제와 관련된 자료에 표시 및 이름을 부여하는 개방 코딩, 코딩된 자료를 범주 및 하위 속성으로 분류하는 범주화 그리고 구성된 범주를 코딩 전 원자료와 비교하는 범주 확인 및 수정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유기웅 외, 2018: 327-328).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순서로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참여자들이 묘사한 경험과 의미가 이해될 때까지 원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었다. 둘째, 반복적 읽기 과정에서 본 연구의 주제와 연구 문제에 부합하는 내용을 추출하였다. 셋째, 유사 경험 및 의미의 자료를 모아 범주화하고 범주명을 부여하였다. 넷째, 범주가 상충 또는 중복되는 경우 범주를 재배열하거나 결합하였으며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자료가 있는 경우 새로운 범주 생성을 통해 어린이집 폐원 경험 및 원장으로서의 소명에 관한 의미를 주제별로 기술하였다. 초기 분석에서 61개 범주가 도출되었는데, 반복적 수정 과정을 통해 9개의 상위 범주와 36개의 하위 범주로 정리하였다. 마지막 단계로 연구에 참여한 원장들에게 범주와 기술된 내용을 회귀하여 내용에 대한 수정 및 동의를 요청함으로써 연구타당성을 확보하였다.

4. 연구의 엄격성

연구의 엄격성은 먼저 연구자의 연구 주제에 대한 민감성을 통해 확보되었다. 연구자는 지난 10

년간 어린이집 원장 또는 교사들이 재학하는 학과에서 전임교수로 가르치고 있고 50명이 넘는 학생들의 논문을 지도하면서 보육정책 및 어린이집에서의 특별한 경험에 대해 들어왔다. 그 과정에서 남다르게 신앙과 인성이 좋아 보이는 원장들도 교사 또는 부모와의 갈등, 민원, 운영난, 폐원 등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을 듣고 어린이집 폐원에 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또한 2024년 3월 말 여동생이 지난 12년간 운영하던 어린이집을 새로운 원장에게 위탁하고 어린이집 현장을 떠나 새로운 직업을 찾았다. 최근 보육교사 또는 원장을 대상으로 한 논문을 여러 차례 작성한 경험을 통해 어린이집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쌓을 수 있었다. 둘째, 전사 및 분석 과정에서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발견된 경우 연구참여자에게 질의하여 답을 받았으며, 모든 연구참여자에게 연구 결과를 귀환하여 확인받는 과정(member check)을 거쳤다.

III. 연구 결과

연구참여자들의 어린이집 폐원 경험에 관한 면담 내용의 분석 및 요약 내용은 표 2에 제시하였고, 그 이하에서는 결과를 상세하게 서술하였다.

표 2. 연구 결과

상위범주	하위범주	내용
교육관: 기독교 세계관에 토대를 두다.	개원 동기: 기독교 소명과 자신의 자녀양육 소명에 근거하여 개원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소명; 기도 중에 받은 소명;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소명으로 받음; 세계에 말씀과 사랑 전파; 원장과 교사는 사역자; 자신의 자녀를 스스로 잘 양육하고 싶은 마음
	운영 철학 및 원리: 영유아를 존중하고 교사다움을 강조하고 기독교 교육 원리를 실천하다.	정서적 안정감·사랑을 주는 어린이집; 기본적 욕구(수면, 식욕)가 잘 채워지는 어린이집; 영유아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어린이집; 바른 인성을 형성하는 교육의 장;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는 영유아로 자라는 어린이집; 교사다움의 실천
	어린이집 특성화: 대상의 필요에 맞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배려와 섬김을 실천하다.	기독교 유아교육의 실천; 부모교육 일상화; 초기 적응 프로그램; 영어·성경·유아교육 3박자의 실천;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가정의 원비나 특강비 면제; 출산한 어머니 케어; 졸업생에게 우산 대여
	하나님의 인도하심 경험: 동행하시고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다.	경제적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은혜; 무사고와 운영의 평안함; 지도점검 통과
	결과, 열매: 예수님 향기가 나고 예수님이 전해지고 칭찬도 듣다.	부모들의 인정; 불교인들이 자녀를 보냄; 입소한 전체 영유아가 예수를 믿게 됨; 정원이 채워짐; 졸업생들의 방문

어린이집 폐원 경험: 어려움이 적잖았으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다.	폐원 원인: 저출산율과 재개발 등 나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한계를 경험하다.	운영의 어려움; 아동학대 신고; 보육이나 기독교 교육의 본질을 잃은 현장; 1개소 이상 운영자에 대한 압박; 재개발
	폐원 과정의 어려움: 아픔뿐이나, 함께 울어주는 영유아와 부모들이 있었다.	경제적 어려움; 교사나 학부모로 인한 상처; 슬픔을 공유 하는 영유아와 부모들
	폐원 이후 진로: 관심과 은사를 활용하여 사람과 하나님을 섬기다.	교회 부설 어린이집 원장으로 취업; 주간보호센터 운영 희망; 원예치료사로 이직; 1개소 이상에서 1개소만 운영; 이직 시 연령의 한계 경험
	폐원의 의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과 복의 통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경험되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움직임; 기도 가운데 인도하심 경험; 새로운 소명 발견; 말기고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는 태도; 씬

1. 교육관: 기독교 세계관에 토대를 두다.

(1) 개원 동기: 기독교 소명과 자신의 자녀양육 소명에 근거하여 개원하다.

신앙인으로서 폐원 경험이 있는 어린이집 원장들이(연구참여자 1, 4, 6, 7, 8) 유아교육을 전공하거나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된 계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기도를 통해 소명을 받음이었다. 연구참여자 7과 8은 요한복음 21장 15-17절(네 양을 먹이라), 연구참여자 1은 잠언 22장 6절(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연구참여자 4는 이사야 59장 21절(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영원하도록... 떠나지 아니하리라)을 통해 영유아교육에 대한 소명을 받게 되었다.

제가 마음에 이제 두고 있는 말씀 이것이 평생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하는 것은 이사야 59장 21절,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영원하도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예요. 말씀이 후손에게, 후손의 후손에게까지 전달되는 그 일에 제가 쓰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연구참여자 4)

그때 기도하면서 주신 비전이 유아교육과였고 제가 해외에 나가서 선교를 하지는 않아도 제가 있는 자리에서 아이들에 대한 소명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구참여자 8)

어린이집 원장들은(연구참여자 1, 2, 4, 6, 7, 8) 영유아를 양육하는 경험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소명이 있음을 고백하였다. 연구참여자들로부터 “사랑”이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도출됨과(연구참여자 5, 6, 7) “말씀 전파”(연구참여자 5), “기독교교육”(연구참여자 7)이라는 표현을 통해 기

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사랑과 말씀을 전하는 데 관심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을 품고 세계로, 세계에 말씀과 사랑 전파하는 것이 제 소명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연구참여자 5)

하나님이 진짜 진짜 저같이 쓸데없는 인간을 이 자리까지 올려놓으시고 100명의 아이들을 저한테 맡기시고... 사랑을 주고 사랑받는 아이들로 잘 키워서 세상에 한 명이라도 더 내는 것이 하나님이 제게 주신 소명이라고 생각해요. (연구참여자 6)

저는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사역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선교사적인 삶이라는 것이 뭘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같이 살면서 녹아내는 거잖아요. 그것이 빠진 원장이나 교사는 이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어린이집에서 대놓고 기독교교육을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다 녹아서 아이들에게 흘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연구참여자 7)

기독교 신앙을 가진 원장들이 어린이집을 개원한 계기는 내 자녀를 스스로 잘 양육하고 싶은 마음에서였다. 연구참여자들은(1, 2, 6, 7) 자녀를 출산했거나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녀야 하는 시기에 어린이집을 개원하여 그곳에서 자신의 자녀를 양육하기도 하였다.

‘내 자녀를 내가 직접 키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연구참여자 3)

“아이 키우면서 어떻게 [유치원 교사]를 하나?”면서 주변에서 가정어린이집을 하라고 권하셨어요. 둘째 아이 낳을 때 되고 계속 권하시길래 2007년에 개원하게 되었죠. (연구참여자 7)

그거(팬티가 허벅지 끝에 말리는 상황에 대해 개선 요청했는데 바뀌지 않는 모습) 보고 화가 나서 제가 하려던 일을 그만두고 보육교사 공부를 다시 해서 자격증을 뒀어요. 따자마자 저희 집에서 개원했어요. (연구참여자 6)

어린이집을 개원한 기타 이유로는 경제적 필요를 채우기 위함(연구참여자 2, 3), 남편과 함께 웅변 글쓰기 학원을 운영하다가 어린이집 운영으로 직종을 변경한 경우와(연구참여자 5) 극심한 고난을 극복하는 방편으로 일에 집중하기 위해 개원한 경우가(연구참여자 3) 포함된다.

(2) 운영 철학 및 원리: 영유아를 존중하고 교사다움을 강조하고 기독교교육 원리를 실천하다.

연구참여자 원장들에게 어떠한 교육관과 원리로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는지 질문한 결과 영아를 전담으로 보육하는 가정어린이집과 영유아를 함께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특징이 구분되어 나타났다. 영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원장들은 주로 신체적, 정서적 평안함에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였다. 예를 들면, 건강하고 자기표현력이 있는 영아로 보육하기(연구참여자 3), 건강한 음식 먹이고 귀가 시에 깨끗하게 씻겨서 보내기(연구참여자 6), 잘 먹고 잘 자고 억지로 하는 것 없이 보육하기(연구참여자 7), 어린이집과 가정에서 안정적인 하루 보내기(연구참여자 1) 등이었다. 영유아를 함께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운영 원리는 어린아이들은 뛰어야 건강하고 보호받아야 하고 존중되어야 함과(연구참여자 5) 바른 인성 형성(연구참여자 2, 8) 등이었다.

어린이집의 비전이 사랑이 있는 곳, 행복이 있는 곳, 치유와 회복이 있는 곳, 잠재력을 깨우는 곳, 세계적으로 선한 영향력 있는 인재를 키우는 곳이었습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할 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하루 일과를 행복하게 보내는 것이며 마음과 몸이 치유되고 회복이 있는 어린이집이 되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연구참여자 1)

제 교육관이 사랑할 줄 아는 어린이 사랑받을 줄 아는 어린이거든요. 어린이집에서 실천한 바로는 ‘아이들이 엄마 품에 안길 때 로션 냄새가 나고 건강한 음식 먹이자! 진짜 배부를 때까지 먹이자!’였어요. (연구참여자 6)

저는 아이들은 365일 뛰어야 건강하다고 생각하고요. 아이들은 어느 상황에서도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온전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눈길과 손길을 따라가다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세상도 열리고 ‘그랬구나! 그래서 그런 거였구나!’ 이해의 바다도 펼쳐지고.. 저는 애들 울리는 거 되게 싫어해요. (연구참여자 5)

인성이 바른 아이들이었으면 좋겠어요...몸은 더 건강해졌는데 마음과 생각이 아픈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8)

연구참여자들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존재 이유부터 달랐다. 원훈에 기독교 세계관을 포함하여 제시한 경우가 있었는데, 연구참여자 4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는 어린이’가 원훈이었고 연구참여자 8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의 경우 ‘사랑과 소망이 가득한 꿈쟁이들의 동산’이라는 슬로건을 사용하였다. 원훈뿐만 아니라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교육과정을 실시하기도 하였다(연구참여자 2, 4).

저한테는 그냥 원훈이었던 것 같아요. 원훈이 사랑받는 어린이, 함께 하는 어린이, 꿈을 꾸는 어린이 이 그랬거든요. 이것 앞에 다 하나님이 들어가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는 어린이라는 의미였는데, 사람들은 함께 하는 그러면 그냥 다른 사람과 잘 함께 어우러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4)

밭에 가서 수확하는 것을 보며 “엄마, 이거 하나님이 길러주셨어”라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이들을 통해서 전달되는 거죠…찬양대도 하고 추수감사절에는 과일을 갖고 와서 독거 어르신들 찾아가서 드리기도 하고 요양원에 가서 말씀 암송 보여드리기도 하고… (연구참여자 2)

폐원을 경험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원장들은 교사들이 지켜야 하는 원칙을 제안하기도 한다. 교사로서의 헌신을 요구하기 힘든 현실을 언급한 원장도 있었고(연구참여자 2), 영유아 중심 보육 실천(연구참여자 1, 5, 7), 교사다움 보이기(연구참여자 7), [어린이집이나 원장에 대해] 불평하지 않기(연구참여자 5, 7) 등을 교사에게 요구하였다.

그때는 10시, 11시, 12시가 되어도 “하하 호호” 웃어가면서 교재 오리고 자르면서 교재 교구 워크숍 했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 교사들은 멘탈도 약하고 또 그렇게까지도 요구할 수 있는 사회적인 여건도 안 되더라고요. (연구참여자 2)

교사들한테도 “선생님들이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 어린이집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업장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원장님 욕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면 실수투성이 원장도 더 좋은 원장이 되지만 ‘우리 우리 원장님 왜 저러냐? 그럼 자기가 혼자 다 하지…’ 이렇게 속으로 욕하면 발전할 수도 없고 도움도 안 돼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번영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선생님들의 예루살렘은 ** 어린이집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믿든 안 믿든 하나님께 항상 ** 어린이집과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역시 선생님과 선생님의 가정, 자녀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요”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연구참여자 5)

교사들에게 “아이들을 마음대로 휘두르려고도 하지 말아라. 가장 좋은 교사는 아이의 어떤 모습

이라도 잘 봐주고 잘 넘기고 잘 흡수시키고 아이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고 노엽게 해서 울리거나 막 상처 내지 않고 아이가 편안한 가운데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사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저는 “선생님의 머리에서 발끝까지가 교수자요”, “눈빛 하나 말 하나 몸짓 하나를 다 아이들이 보고 있으니까 선생님 자신이 교육자요”라고 얘기하죠. (연구참여자 7)

(3) 어린이집 특성화: 대상의 필요에 맞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배려와 섬김을 실천하다.

연구참여자 원장들은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섬김을 시도하고 있었다. 예배드리기·기독교교육 실천하기(연구참여자 2, 4, 8), 무시로 실시하는 부모교육(연구참여자 5), 개인별 특성에 맞춘 초기 적응 프로그램과 부모 상담(연구참여자 1), 영어·성경·유아교육 3박자의 실천(연구참여자 4), 원비나 특강비 면제(연구참여자 8), 출산한 재원생 어머니에게 미역국 끓여 대접하기(연구참여자 7), 졸업생에게 우산 (빌려)주기(연구참여자 5) 등이 도출되었다. 연구참여자 4는 폐원 이전에 근무하던 선교원에서 영어교육·성경교육·유아교육을 잘 실천하는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다. 영어교육은 담임목사님의 요청에 따라, 성경교육과 유아교육을 잘 실천하는 것은 선교원이 설립된 이유이자 원장의 교육 철학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목사님께서 저에게 “우리 애들을 돈 들여서 영어 유치원 안 보내고 선교원에서 영어 잘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유아교육을 하면서 영어를 잘 가르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터라... 여기서는 영어도 잘하고 유아교육도 잘하고 성경도 잘 가르치는 세 마리 토끼를 잡아야 했었어요. 그래서 선교원임에도 80명까지 왔었어요. (연구참여자 4)

어머니가 자녀 데리러 왔을 때 “선생님 누구 준비시켜주세요” 하고 그 시간에 한 포인트만 잡아서 “제발 유튜브 좀 보여주지 말고 유모차 태우고 다니지 말고 아이 손잡고 아이가 바라보는 걸 같이 바라보라”라고 말합니다. “땡땡아, 나뭇잎이 물들었어. 어머 너무 예쁘다!” 한마디라도 해주면 아이가 바라볼 텐데, 엄마는 유모차 끌고 가고 아이는 그냥 핸드폰만 보고 이러는 거 보면 진짜 너무 안타까워서 육아 정보를 주려고... (연구참여자 5)

제가 그때 기도하면서 ‘20명 인가인 경우 십일조처럼 2명에서 4명 정도 불우한 아이들의 원비를 받지 않고 해야 하겠다’ 생각을 한 적이 있어서... 요즘은 나라에서 다 보육료 지원하지만, 아직도 부모 부담인 특성화비나 특강비 같은 경우 못 내시는 분들이 사실 있어요. 원 자체에서 그 부분을 도와드리려고 했고 졸업 때 어떤 학부모님이 너무 감사하다는 장문의 편지를 써서 주셨는데 그걸

보고 울컥한 적이 있습니다. (연구참여자 8)

“만약에 학교를 가거나 오거나 하는데 갑자기 비가 오고 너흰 우산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해? 너희들은 무조건 어린이집으로 뛰어오면 돼. 항상 원장님이 있을 거고 우산 줄 거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진짜 와요. 그래서 우산도 들려 보내고 또 엄마한테 전화해서 “어머니, 땡땡이 이래서 이렇게 했고…” 어느 날은 음료수를 들고 와서 “이거는 원장님 것, 이거는 우리 선생님 음료수”라며 주기도 하고… (연구참여자 5)

그때는 정말 열성이 있어서 엄마가 애 낳으면 미역국 한 솥 끓여서 갖다주고 엄마가 좀 편찮거나 이러면 아파트 단지니까 가서 제가 업고 오기도 하고 그랬죠. (연구참여자 7)

(4) 하나님의 인도하심 경험: 동행하시고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다.

폐원을 경험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원장들은 때때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고백하였다. 운영이 어려워 경제적 어려움을 겪음에도 어린이집을 유지하고 버티도록 도우심(연구참여자 5, 6), 오랜 기간 무사고와 평안한 운영(연구참여자 6, 8), 가정에서 민간으로 확장 인가를 마지막 시점에 받게 됨(연구참여자 8) 그 예다. (한 명의 원장이 어린이집 2개소를 운영하는 곳을 타겟으로 해서) 일주일 전에 공지되었던 지도점검을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마침(연구참여자 7) 등 다양한 스토리가 공유되었다.

운영위원 어머니들이 “원장님, 이거 이렇게 마이너스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라고 하시면 제가 항상 했던 말이 있어요. “여기 어린이집은 제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운영하세요” 믿지 않는 엄마들도 나중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죠”라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말기고 했던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6)

저희 ** 어린이집 이름 뜻이 하나님이 늘 함께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의 **이에요. 어머님과 아버님께서 매일 새벽기도 제단을 쌓으시던 예배가 있는 곳이고…너무 감사하게 20년 동안 운영하면서 특별히 큰 문제 없었고 지금까지 아이들 모두 건강하고 진짜 좋은 학부모님도 만나고 했지만… (연구참여자 8)

갑자기 일주일 앞에 두고 점검 공지가 떴어요. 일주일 진짜 힘들었었죠. 내일이 점검일이고 오늘 예배드리는데 그날 말씀이 ‘힘써 대장부가 돼라’였어요. 막 준비하다 지치기도 했는데 예배를 드리고는 점검 잘 받게 되었어요. (연구참여자 7)

(5) 결과, 열매: 예수님 향기가 나고 예수님이 전해지고 칭찬도 듣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원장의 교육관과 실천을 통해 나타난 결과는 부모들이 인정함(연구참여자 2, 5, 6, 7), 선교원에 입소한 전체 영유아가 예수를 믿게 됨(연구참여자 4), 정원이 채워짐(연구참여자 5), 졸업생들의 방문(연구참여자 5, 8) 등이었다.

또 어린이집 운영하는 내내 한 번도 부모님들이 손가락질을 한다거나 저한테 “운영이 뭐 이래요?” 이런 불평 하나도 없이 폐원하는 그 순간까지도 끌어안고 울면서 “원장님 어떻게 해요?”라고 서로 위로하면서 아이들 예쁜 모습만 보면서 그렇게 20년 가까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주신 것에 정말 감사해요. (연구참여자 6)

제가 어떤 마음이었냐면 ‘어린이집이라기보다는 여기는 매일 아이들이 오는 교회다’ 이런 마음이었고 ‘영은 몸이 작고 크고에 따라서 살아온 연수에 따라서 성장하는 게 아니라, 이 조그마한 아이들한테도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 영적으로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저희 원에는 들어오면은 100% 다 예수를 믿는 상황이 됐어요. (연구참여자 4)

그 아이들이 졸업해서 찾아왔을 때 선생님들이 다 그대로 많이 계시다 보니까 되게 뿌듯하고… (연구참여자 8)

2. 어린이집 폐원 경험: 어려움이 적잖았으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다.

(1) 폐원 원인: 나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한계를 경험하다.

많은 연구참여자들이 언급한 어린이집 폐원의 직접적인 원인은 운영의 어려움이었다. 경제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은 어린이집 개원의 이유이기도 했고(연구참여자 2, 3) 폐원의 원인이기도 했다. 연구참여자 2, 3, 5, 6, 8이 운영하던 어린이집의 폐원 이유도 수익을 낼 수 없는 운영상의 어려움이었는데, 구체적인 이유로는 구도시화로 인한 영유아 수의 감소(연구참여자 1), 수년 내에 주변 국공립 어린이집 3개소 신설(연구참여자 6), 무리한 임대료 인상(연구참여자 8) 등이었다.

폐원 원인 중 하나는 저출산의 영향이었고 나머지 한 가지는 제가 어린이집 운영했던 곳이 구도시에 있었던 거예요. 어머님들은 다 신도시로 가니 구도시에 아이들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열심히 잘해도 원장 급여를 책정하기가 어려웠어요. (연구참여자 1)

36명 정원에 아이들은 15명 밖에 없고 0세부터 5세까지 있어요. 그럼에도 선생님들은 반마다 한 분씩 있어야 하고 그리고 민간이라서 4세 5세가 합반은 안 돼요. 그런데 나를 믿고 보내는 이 5세 6명을 다른 데 가라 할 수도 없어요... 남편이 노가다를 해서 벌어오는 돈으로 교사 월급 주고 저는 거기서 반을 맡고 차량을 하고 아이들 간식 준비하고 원 전체 신경 쓰면서 운영을 했거든요. (연구참여자 5)

폐원을 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는 무리한 임대료예요. 처음 계약할 때 350만 원으로 시작했던 임대료가 2년 이후부터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더니 5년 차에는 500만원 이상으로 넘어가더라고요. (연구참여자 8)

연구참여자 원장들이 경험한 어린이집 폐원의 또 다른 원인은 아동학대 의혹의 제기였다(연구참여자 1, 3). 원장들은 아동학대 신고로 조사를 받게 되면서 마음이 다친 데다가 어린이집의 명예와 신뢰가 실추되어 더 이상 운영을 할 용기를 상실하게 되었다.

CCTV를 보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경찰 대동하라는 말도 안 하고 그냥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착각했다며 죄송하다 하고 가셨어요. 가셨는데...[아동학대 증거를] 엄마도 못 찾고 아동보호 전문센터에도 못 찾고 시청에서도 못 찾았는데, 시청은 오자마자 우리가 범인인 것처럼 다루고 경찰서에도 두 번인가 세 번을 왔어요. 경찰과 검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끝나는 데는 일 년이나 걸리더라고요. (연구참여자 3)

아이가 낮잠 자기 힘들어하잖아요. 근데 교사는 그 아이를 강제로 재우고 안 자려고 수를 쓴다고 하면서 “왜 원장님은 낮잠 안 자는 우리 반 아이들을 터치하냐?”라고 저한테 항의를 하는 거예요. 이 교사가 지자체에서 저를 방문해서 점검을 받게 했고, 사실상 그분으로 인해서 어린이집을 폐원하게 되는 결정적인 마음을 갖게 됐어요. (연구참여자 1)

폐원을 경험한 기독교인 원장들은 보육 또는 기독교교육의 본질을 잃은 보육 현장을 보며 더 이상 어린이집을 운영할 의미와 의지를 갖지 못하게 되었다.

본질이 희석되어 정기적 또는 불시의 지도점검이라든지 평가제라든지 급식지원센터의 급간식 관리라든지 CCTV 특별히 코로나로 인한 매뉴얼이 쏟아지면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지치더라고요.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시간의 비중이 커서 저 뿐만 아니라 교사들이 영아들의 필요를 민감하게 채울 수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어려움을 느끼는 아이들을 돌보고 부모님 상담하는 일을 하다 보면 저는 밤늦도록 행정적인 일들을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본질을 잃은 보육 현장은 싫다. 나는 떠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구참여자 1)

주임 선생님을 [교회 부설 선교원 원장으로] 보내고 나니까 저희 시스템이 흔들리더라고요. 떠나고 난 이후 제가 교실에 들어가서 수업을 할 수는 없었니까요... 저희 남편이 신학대학원을 마치고 이제 개척을 해야 될 즈음이기도 했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색깔의 (불신자) 선생님들과 여기 이 자리에서 10년을 이 영적 색깔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을 때 그냥 답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동안 폐원을 못 했던 이유는 원장 명함이라 수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고 싶은 그 색깔(기독교 세계관으로 통합된 수업)을 생각했을 때는 '여기서 계속하는 것은 아니구나'라고 정할 수 있었어요. (연구참여자 4)

기타 폐원 이유에는 재개발로 인해 이전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음과(연구참여자 2) 어린이집 2개소 운영자를 타겟으로 한 지도점검(연구참여자 7) 등이 해당된다.

국민주택 아파트 단지로 부지가 선정되고 보상관계가 오가면서 이전을 했어야 하는데, 땅값은 시세에 비해서 너무 낮게 보상을 받았고(물론 우리 땅은 아니지만) [이사 갈] 땅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어린이집에 대한 보상은 하나도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할 수 있는 여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연구참여자 2)

최근 몇 년 동안에 [한 원장이 두 개 운영하는] 어린이집 없애기 지도점검 이런 게 굉장히 빡빡해졌어요. 작년에 점검 두 번 한다고 하고...한 대표가 두 개를 운영하면 모든 것에 다 타겟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작년에는 마무리하는 걸로 마음먹고 폐원 결정을 했죠. (연구참여자 7)

(2) 폐원 과정의 어려움: 아픔뿐이나, 함께 울어주는 영유아와 부모들이 있었다.

연구참여자들 중에서 폐원의 아픔을 호소하지 않은 이는 없었다. 연구참여자 8의 경우, 건물주와 3개월간 법정 분쟁을 경험하면서 권리금과 보증금을 합하여 1억 원 이상의 금전적 손해를 보았고 3-5년 재원했던 학부모들이 입학금과 (입던) 체육복비 반환을 요청하는 일도 경험했다. 이 과정을 겪으면서 기도 중에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과 내가 어떻게 운영했는지 아신다’는 사실에 위로를 받아 회복할 수 있었다. 폐원 과정을 질문했을 때 연구참여자 2의 “아픔뿐이었다”라는 답변은 모든 연구참여자의 마음을 대변한다고 보인다.

폐원의 경험은 그냥 아픔뿐이었어요. 폐원의 가장 큰 문제가 전원 조치고 그리고 교재교구는 뭐 어차피 사적인 재산이니깐 그냥 다 처분하다시피 그냥 다 뿔뿔이 가져가고... 폐원 과정 엄청나죠. 저 맨날 저녁에 퇴근하고 거기서 울다가 집에 가고 울다가 집에 가고 그랬는데 기한도 있고 해서... (연구참여자 2)

3개월 동안의 법정 분쟁 기간 중 처음 1개월은 정말 힘들더라고요. 폐원 과정에서 학부모님들이나 믿었던 교사들이나 학부모님들의 또 다른 모습들에 상처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렇게 치유함을 마음으로 받아서 천천히 회복했던 것 같아요. 마음으로 회복하니깐 그 이후로부터는 조금 괜찮아지고 잠도 좀 자고, 처음에는 진짜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8)

저는 마음이 너무 많이 아팠죠. 나중에 관리동 안 하면 나이 들어서 50대 후반이나 60세쯤 됐을 때 거기서 영아들 키우고 싶었어요...영아는 6~7명만 있어도 운영이 가능하거든요. 정말 꼭 필요한 엄마들 위해서 그 어린이집은 항상 남겨두기를 바랐는데 거기를 없애게 된 것은... 제가 십몇 년간 정성을 들이고 유지를 하고 거기에 애정을 엄청 쏟았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안 좋았죠. 그런데 항상 두 개를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안 좋은 시선으로 보고 결국은 타켓이 돼서... (연구참여자 7)

폐원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원장뿐 아니라 영유아나 부모들에게도 아픔이었다(연구참여자 2, 5, 6). 어린이집을 떠나기 싫어하는 영유아로부터 폐원 시 눈물을 흘리거나 폐원 후에도 연락을 하는 어머니들이 있었다.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섭섭해하던 모습을 보였어요. 아이들의 입에서 “다른 어린이집에 안 갈 거야” 이야기하면서 눈물도 흘렸고 부모님들도 너무 아쉬워하시고… 그 시점에는 “잠깐 휴원하고 곧 땅을 마련해서 어린이집 지을 거예요”라고 했더니 “빨리 지어주세요”라고 얘기하고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 어린이집이 너무 생각이 나요”, “이때 즈음에 뭘 했고 이때 즈음에 뭘 했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안부를 묻는 경우도 있고… (연구참여자 2)

폐원하는 그 순간까지도 끌어안고 울면서 “원장님 어떻게 해요?”라고 서로 위로하면서… (연구참여자 6)

(3) 폐원 이후 진로: 관심과 은사를 활용하여 사람과 하나님을 섬기다.

기독교인 원장의 어린이집 폐원은 새로운 소명을 발견하는 기회가 되었다. 노인을 섬기는 주간보호센터를 운영에 관심을 갖는 연구참여자 1과 2, 원예치료사로 이직한 연구참여자 4, 가정어린이집 원장에서 새로운 교회 부설 어린이집의 월급 원장으로서 100명의 영유아를 지도하게 된 연구참여자 6 등이 그 예이다. 특이사항은 주간보호센터에 관심을 가진 원장들은(연구참여자 1, 2) 60세를 전후한 연령적 특성과 유쾌하고 적극적인 성격의 소유자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주간보호센터 개설의 동기를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도록 지원하기(연구참여자 1) 그리고 말씀 전하기(연구참여자 2)라고 밝혀 시니어를 복음 안에서 섬기기를 바라는 마음이 드러나기도 하였다.

개개인의 요구가 반영되는 행복한 곳, 가고 싶은 곳 그런 데이케어센터나 요양원을 운영하고 싶어요. [시니어 사역에 대한] 마음을 담아 제가 이름도 구성해 봤어요. 하나는 Grace Garden, 은혜의 정원 또 하나는 The Life for You, 당신을 위한 새로운 삶… 저에게 경제적인 도움은 많이 되지 않더라도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섬기는 일을 하고 싶어요. (연구참여자 1)

‘요즘은 고령화 시대니까 주간보호센터를 해야 될까? 그러면 그 어르신들한테도 말씀을 전할 수 있지 않나?’ 목사님(남편)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황혼길 가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하려고 찾아다녔어요. (연구참여자 2)

폐원을 경험한 원장 중에는 영아반 교사로 교회 부설 어린이집에 취업하였다가 1개월 만에 그 어린이집의 원장이 된 연구참여자도 있다.

[2월말 폐원 후 3월 초 2세 반 교사로 취업하고] 3월 마지막 주 즈음에 목사님이 면담 좀 하자고 해서 갔더니 “사실은 원장님 재목으로 저희가 면접을 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을 드리지 않아서” 그러면서 “저희 원을 맡아주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하셨어요. (연구참여자 6)

원예치료사가 된 연구참여자 4는 석사학위논문을 ‘기독교 세계관으로 통합된 생활주제...’라는 제목으로 작성했던 기독교 세계관과 자연에 남다른 관심이 있었던 목회자 사모로서 자신의 관심과 적성을 살려 성공적으로 이직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는 폐원 후 남편과 함께 식물로 가득 찬 카페 교회를 운영하면서 유아교육기관, 장애인 교육기관, 시니어 복지기관, 원예치료사 훈련 프로그램 등에 출강하며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제가 원래 또 식물을 좋아했고 누가 원예치료사라는 직업이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어서 2월에 폐원하고 3월에 자격증 과정에 ‘이게 뭐지?’ 싶어서 들어갔어요. 좋았던 점은 ‘식물이 자라나는 과정만 봐도 여기에 하나님의 순리가 있구나. 우리 인생도 이렇게 살면 되는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생의 주기가 여기에 다 들어있거든요. (연구참여자 4)

그런데 폐원을 경험한 어린이집 원장 중에서는(연구참여자 1, 3) 연령의 한계로 인한 이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들이 있었다.

연령의 한계로 기관에 근무하는 것이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연구참여자 1)

극복하지 못했어요.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어린이집 원장밖에 없고 하고 싶은 게 없어 찾고 있어요. 이직을 위한 시도로 컴퓨터도 배워보려고 하는데 나이가 많다고 그럴 것 같아요. 나이가 많아서 받아주지 않아서 이직도 고려할 수가 없어요. (연구참여자 3)

(4) 폐원의 의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과 복의 통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경험되다.

연구참여자 원장들은(연구참여자 2, 5, 6, 7) 어린이집의 운영과 폐원 과정이 하나님의 돌보심, 자신의 훈련, 그리고 복으로 이어지는 통로였다고 고백한다.

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사실 어린이집이 많이 어려웠거든요. 36명 정원에 15명 밖에 없는데 교사는 5명이고 원장은 겸직도 안 되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모르는 사람들은 “미쳤다. 넌 그거를 왜 붙잡고 있냐? 그거를 놔야지! 빨리 폐원시켜!!”라고 했지만 저는 ‘그래도 나를 믿고 보내는 한 명의 아이라도 있다면 내가 이 자리를 지켜야지 이거는 뭐 폐원하고 이런 차원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저는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한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잘 이겨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3년을 운영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정말 복을 주신 거죠. 72명 정원의 관리동을 저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연구참여자 5)

일단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 당시에 넉넉하지 않은 삶 속에서 직장이 하나 없어진 거잖아요. 1996년도에 어린이집을 시작했는데 2022년도까지 오면서 제가 어린이집을 세 번을 옮겼어요. 첫 번째 어린이집이 없어지면서 진짜 이제 어린이집은 끝났나 보다 했는데 기적적으로 한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연구참여자 2)

일부 연구참여자들은(1, 4, 7) 어린이집을 하나님께 맡기고 인도하시는 대로 기대하고 기다리는 태도로 삶을 이어감을 언급하였다. 이 내용에 대해 언급한 연구참여자들의 고백에서 주어가 ‘하나님’임이 발견되었다.

하나님께서 제게 비전을 주셔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하셨고 지금은 정리하게 하셨고 제가 정리한다고 정리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때와 섭리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많은 자격증을 비롯해 여러 가지를 준비시키셨는데, 또 준비된 자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어느 곳으로 인도하실까 좀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연구참여자 1)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그 자리에 나의 남은 평생을 잘 인도받으면 좋겠다’라고 소망해 봅니다. 때를 따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가르쳐 주시겠죠. (연구참여자 4)

하여튼 이제 큐티하고 공예배 말씀 듣고 또 가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또 인도해 주시고 이래서 저는 ‘힘들었지만 은혜를 많이 체험하고 살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구참여자 7)

기타 의견으로는 ‘쉽’이 나왔다. 연구참여자 1은 “제가 ‘하나님, 나 정말 지금 쉬고 싶어요. 나에게는 진짜 쉬이 필요해요’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을 때 말씀을 통해서 [폐원을] 확신하게 됐었어요”라고 고백하였다.

IV. 논의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폐원 경험이 있는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운영과 폐원의 의미를 분석하였으며, 이하에서는 연구 문제 별로 제시된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연구참여자의 교육관을 확인하기 위해 어린이집을 개원한 동기에 대해 질문한 결과 연구참여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기도를 통하여 소명을 받음, 복음 전도, 자신의 자녀를 어린이집에서 양육하고 싶은 마음, 경제적인 필요를 채움 등을 언급하였다. 반면 선행연구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의 직업 선택 동기가 동경하는 인물의 이미지, 앞장서서 이끄는 리더십, 자신감으로 나타났다(오교선·이병환, 2020). 인생학교의 설립자 Krznaric(2013, 82-116)은 직업을 의미 있게 만드는 요인으로 경제적 필요 채우기, 사회적 지위 획득, 더 나은 세상 구축에 기여하기, 열정 따르기, 재능 활용하기로 제안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연구했던 오교선과 이병환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자 Krznaric의 견해와 일부 상이한데, 연구참여자들이 밝힌 개원 이유 중에 경제적인 이윤 추구하고 자신의 자녀 양육이 포함되기는 하였으나 말씀에 기초하여 복음을 전하고 영유아를 건강하게 양육하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더 많은 연구참여자에 의해 표현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의 어린이집 운영 철학과 원리는 영아 전담인 경우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안하게 양육하는 것, 영유아가 함께 재원한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인성의 강조와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누리며 꿈을 키우는 내용의 기독교 원훈 등으로 제시되었다. 이중 몸과 마음의 평안에 관한 견해는 원장들이 제시한 권리 존중에 영유아의 권리에 대한 인식, 놀이와 휴식, 의사 표현에 대한 존중이 포함됨과(권경숙·황인애, 2016) 국가 보육정책의 과제로 영유아의 권리 보장, 영유아가 행복하도록 돕는 기본 욕구 충족, 사랑받고 수용되는 경험 등을 포함하는 기본교육 강화가 제안됨으로부터 지지받는다(노경숙 외, 2023). 연구자들은 본 결과가 영유아들이 어린 시기에 입소하여 장시간 어린이집에서 보내면서 개별적 요구가 충족되지 못하는 환경에서 제시된 것으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영유아의 기본적 욕구 충족을 통한 심리적 안정감을 도모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제안하였다(노경숙 외, 2023).

연구참여자들이 실시한 특성화 프로그램으로는 기독교교육 실천, 부모교육 및 상담, 영어교육·성경교육·유아교육의 동시 실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 어린이집 원비나 특강비 면제, 출산한 가정에 미역국을 끓여 전달하거나 비 오는 날 졸업생에게 우산을 보내는 등의 돌봄을 실천하는 예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실천의 결과로 원장들은 부모들의 인정, 불신 가족의 구원, 미충원되었던 정원의 충원, 졸업생들의 방문을 경험하였다. 원장의 직무 경험을 탐색한 연구에서 원장은 직무를 통해 지속적 성장, 희로애락, 정체성과 능동적 직무수행, 지속적 학습을 경험하게 된다고 보고되었다(오교선·이병환, 2020). 본 연구참여자들은 성장, 희로애락, 능동적 직무수행을 넘어서 수고로움과 복음 전파를 위한 섬김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고 그러한 섬김이 칭찬과 영혼 구원이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러한 노력은 일터 증인의 자질에 탁월한 업무능력, 순전한 인격, 사랑과 섬김, 표적과 기사가 포함되며, 하나님은 이러한 자질을 가진 기독교인을 통해 일하신다고 주장한 Hillman에 의해 지지된다(2007: 61-73).

연구참여자들이 경험한 폐원의 원인에는 운영난, 아동학대 신고, 보육·기독교교육의 본질에서 벗어난 현장, 재개발로 인한 이전 실패, 임대료 인상이나 어린이집 2개소 운영자를 타겟으로 한 평가의 어려움 등이 포함되었다. 폐원 후 원장들의 진로는 주간보호센터 운영 희망, 원예치료사로 이직, 월급 원장으로 취업, 어린이집 2개소 운영에서 한 곳 운영으로 역할 축소였으며, 재취업 도전 시 연령의 한계를 경험한 연구참여자들도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시한 어린이집의 폐원 원인은 원아 감소, 재정 문제, 법령위반, 임대차계약 만료, 국공립 전환, 재개발 등이었는데(2020: 5), 본 연구에서는 법령위반과 국공립 전환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원인이 모두 언급되었다. 본 연구에서 운영의 어려움은 가장 빈번하게 도출된 폐원의 원인이었었는데, 선행연구에서는 열악한 재정이 영유아 보육에 소요되는 재정의 부족을 넘어 보육교사의 처우와 근무 여건의 열악함으로 이어져 유능한 보육교사 미확보로까지 연결될 수 있음을 우려하였다(신나리 외, 2022). 아동학대 역시 어린이집 폐원의 주요인으로 도출되었고, 아동학대 신고 경험을 언급한 모든 연구참여자의 경우 무혐의 판정을 받았으나 그 피해가 상당함을 언급하였다. 최근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에 관해 수행된 연구가 여러 편 있다(문수영·허혜경, 2022 ; 이세라피나·임여정, 2021 ; 임혜진·조성웅, 2022). 선행연구에서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어린이집 원장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문수영·허혜경, 2022 ; 이세라피나·임여정, 2021), 영유아에게 미치는 피해와 어린이집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라는 피해를 지적한다(이세라피나·임여정, 2021). 보다 구체적으로, 아동학대 의심 사건을 경험한 원장들은 보육 현장을 고려한 체계적인 행정지원 부재(체계적이지 않은 조사, 장시간 소요), 부정적 인식으로 인한 어려움(불안을 조성하는 매체, 벼랑 끝에 선 기관과 보육교직원) 그리고 판정 이후의

어려움(원장의 심리적 소진, 교사로부터의 상실감 극복 및 관계 회복, 학부모와의 갈등 개선 노력)을 보고하였다. 더 나아가 부정적 인식으로 인한 어려움이 운영난까지 연결됨을 언급하였다(임해진·조성웅, 2022). 본 연구참여자들이 선행연구의 피해 내용에 대해 대부분 언급하였던 점과 아동학대 의심 신고로 인한 부정적 인식이 운영난까지 이어진다는 본 견해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참여자 중 폐원 이후 노인복지를 실천하고자 하는 이들이 있었는데, 이는 원장들의 이직 방향으로 노인복지를 고려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신은미(2023)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연구자는 영유아 돌봄에 대한 아쉬움을 노인 돌봄으로 전환하려는 모습을 통해 원장들에게는 사랑과 돌봄에 대한 욕구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해석하였다.

폐원의 의미는 하나님의 돌보심·훈련·복을 경험, 새로운 소명 발견, 인도하심 대로 따르는 훈련, 쉼 등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원장이 경험하는 갈등과 극복 과정을 다룬 선행연구에서 ‘운영과 폐원 사이의 두려움’이라는 결과가 나타난 것은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범주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다른 직종에 대한 관심, 운영과 폐원에 대해 공유할 사람의 부재, 정보 수집을 위해 연합회 임원이 됨, 해고에 대한 불안, 운영에 대한 정보 출처의 필요성, 원아모집 홍보에 대한 고민, 미래 계획을 세울 수 없는 현실의 막막함, 새로운 직종으로 가는 망설임 등이다(신은미, 2023). 이와 같은 결과는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기도 하고 일부 불일치하기도 한데, 일치하는 부분은 폐원을 앞둔 두려움, 미래에 대한 고민과 타 직종에 대한 관심 등이고 상이한 점은 선행연구 참여자들의 경우 폐원을 공유할 사람, 연합회 임원을 맡음, 정보를 얻을 곳의 필요성 등 사람과 정보에 의존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본 연구참여자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등의 표현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함으로써 고난의 시기에도 하나님의 소명을 확신해야 하고 고난 중에도 소명을 유지해야 한다는 그리고 직업 수행 중 발생하는 모든 경험, 실패, 성공, 승계, 위임, 좌절, 경쟁 등은 우리를 영적 성장의 길로 초대한다는 Stevens(2018: 62-63, 35)의 견해로부터 지지 받는다.

본 연구자는 폐원 경험이 있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원장을 통해 나타난 교육과 폐원의 의미는 ‘진정성’과 ‘하나님 경외’였다고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이러한 판단은 대기업의 사명 선언문을 조사하여 ‘진정성’이라는 공통분모를 발견하였고, 진정성은 그리스도인이 일터를 포함한 삶의 전 영역에서 추구할 목표라고 본 Coffey의 주장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2011: 137). 연구의 대상은 상이하나 신앙의 힘을 보여주는 선행연구가 존재하는데, 보육교사의 희망, 영성, 격려 간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으며 더 나아가 보육교사의 희망과 격려 간의 관계에서 영성이 완전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희망은 영성을 거쳐 격려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힌 결과는(이종연·김복미, 2016) 본 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다. 또한 어린이집 교사의 소명의식, 윤리실천 수준, 행복감 간에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과 소명의식의 하위요인 중 목적·의미-존재와 친사회적 지향-존재가 영유아에 대한 윤리실천 수준 및 내·외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변인이라는 결과를 통해(유은실, 2018) 소명의식은 교사의 현장 교수와 교사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보인 결과 역시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참여자들의 경력이 15년 이상, 연령은 48세 이상으로 경력과 연령이 높은 자들로 구성되었다는 한계를 가진다. 30대 후반이나 40대 초중반에 폐원을 경험한 원장을 만나는 일이 수월하지는 않겠지만 ‘보다 젊은 연구참여자가 포함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좀 더 넓은 지역에서 표집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원장들의 보육 현장 스토리를 후속 연구에서 다뤄주기를 제안한다. 본 연구 결과를 기초로 연구자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어린이집 폐원에 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을 보여주기를, 폐원을 경험한 원장들을 대상으로 직업적성(심리) 검사를 실시하여 제2의 직업을 찾는 과정에 도움을 제공하기를 제안한다. 또한 그리고 폐원 경험이 있는 원장들의 경험과 연계된 다함께 돌봄센터나 지역아동센터 운영이나 본 연구참여자들이 희망했던 노인복지 관련 직업으로의 이직을 위한 제도의 실행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비롯한 기독교 유관기관에서 직업 및 고난에 대한 교육과 유형별 고난 극복 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최근 5년 이내에 어린이집 폐원 경험이 있는 기독교인 원장을 대상으로 교육관 및 폐원의 의미를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참여자들의 운영 철학 및 원리는 몸과 마음이 건강한 영유아로 보육하기, 건강한 인성 형성하기 및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는 영유아로 양육하는 기독교 원혼으로 나타났다. 원장들은 교사다움을 유지하고 어린이집이나 원장에 대한 불평을 금하는 교사를 향한 원칙도 제시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특성화 프로그램도 발견되었는데 기독교 교육 실천, 부모교육 및 상담, 영어교육·성경교육·유아교육의 동시 실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 원비나 특강비 면제 등이며 사랑의 섬김을 실천한 사례들이 포함되었다. 이와 같은 실천을 통하여 부모들의 인정을 받음, 불신자의 구원, 부족한 정원의 충원, 졸업생의 방문으로 이어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폐원의 원인은 운영난, 아동학대 신고, 보육·기독교교육의 본질에서 벗어난 현장, 재개발

로 인한 이전 실패, 임대료 인상, 그리고 어린이집 2개소 운영자를 타겟으로 한 평가의 어려움 등이 포함되었다. 폐원을 경험한 원장들의 진로는 주간보호센터 운영 희망, 원예치료사로 이직, 월급 원장으로 취업, 폐원 전 2개소 운영에서 1개소 운영으로 축소 등이었고, 재취업 과정에서 연령의 한계를 경험한 연구참여자들도 있었다. 폐원의 의미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 새로운 소명의 발견,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는 훈련, 삶의 기회 등으로 나타났다.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목적은 생명과 살롬을 사람, 사회, 모든 창조물에 제공하는 것이라는 Stevens(2018: 54)의 제안과 직업의 목표 중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피조물이 번창하도록 그분의 세계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Coffey(2011: 13)의 제안으로 본 연구를 맺고자 한다. 초저출생율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최전방에서 대응하다 또는 아동학대 의심이라는 억울한 일을 당하여 또는 재개발이나 무리한 임대료 인상 등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폐원을 경험하긴 하였으나, 연구참여자들은 영유아 보육을 통해 세상에 살롬을 외치고 실천하는 자들이었다고 보인다. 각박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직업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진정성을 가지고 일하는 소명자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하며 본고를 마친다.

참 고 문 헌

- 국민권익위원회 (2020). **영유아 보호를 위한 어린이집 폐원절차 개선방안**. 세종특별자치시: 국민권익위원회.
- 권경숙·황인에 (2016). 영유아 권리존중에 관한 어린이집 원장들의 담론.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7(2), 399-421.
- 노경숙·장정윤·심성경 (2023). 현행 국가 보육정책 하에서 어린이집 원장의 운영경험에 대한 면담 연구. **육아지원연구**, 18(4), 33-61.
- 노혜진·이현옥·김성욱 (2019). 생애사를 통해 본 경제위기 20년. **사회보장연구**, 35(4), 1-33.
- 문수영·허혜경 (2022). 어린이집원장의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훈육의 재개념화’ 실천에 관한 실험연구. **유아교육연구**, 42(6), 209-229.
- 박일귀 역 (2018). **나이들의 신학: 당신의 소명을 재구성하라**, Stevens, P. R. (2016). *Aging Matters*. 서울: 도서출판 CUP.
- 백지윤 역 (2022). **일과 성령**, Volf, M. (1991). *Work in the Spirit*. 서울: IVP.
- 보건복지부 (2024).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2023). **2022년 12월 말 기준 보육통계**.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 신나리·김경화·윤현정·노필순·송지은 (2022). 어린이집 운영상 어려움의 예측요인 탐색: 원장보고를 중심으로.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8(4), 17-36.
- 신은미 (2023). **어린이집 원장이 경험하는 갈등과 극복 과정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배재대학교.
- 오교선·이병환 (2020).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의 직무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열린교육연구**, 28(1), 323-342.
- 유기웅·정종원·김영석·김한별 (2018).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서울: 박영STORY.
- 유은실 (2018). **어린이집 교원의 소명의식이 윤리실천 수준과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 유재연 (2015).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에 따른 폐쇄위험과 수급조절 방안. **보건사회연구**, 5(4), 462-490.
- 이세라피나·임여정 (2021).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원장의 역할에 대한 연구: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기반으로. **영유아아동정신건강연구**, 14(2), 79-109.
- 이종연·김복미 (2016). 보육교사의 희망과 영성 및 격려의 관계. **유아교육연구**, 36(1), 231-252.
- 임해진·조성웅 (2022). 어린이집 원장의 아동학대 의심사건에 대한 경험 탐구. **인지발달장애학회지**, 13(1), 123-140.

- 전윤숙 (2016). 어린이집 원장이 인식하는 원장의 이미지의 기관유형별 분석. **유아교육연구**, 36(1), 213-230.
- 정지현 역 (2013). **인생학교, 일: 일에서 충만함을 찾는 법**, Krznaric, R. (2012). *How to Find Fulfilling Work*. 파주: 쌤앤파커스.
- 조계광 역 (2007). **일터 사역: 믿음으로 일터를 변화시키는 일**, Hillman, O. (2005). *The 9 To 5 Window*. 서울: 생명의말씀사.
- 조성순·정소희 (2023). 실직을 경험한 중년남성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3(8), 339-357.
- 홍정림 (2022). 실업이 주관적 건강 및 건강행동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42(4), 110-126.
- 홍병룡 역 (2011). **하나님은 월요일에 무슨 일을 하실까? 당신이 하는 일과 신앙의 관계**. Coffey, I. (2012). *Working It Out*. 서울: 새물결플러스.
- Berg, M. (2020). *Vocation: The Setting for Human Flourishing*. Irvine, CA: New Reformation Publishing.
- 경향신문 (2023. 2. 22). “줄 잇는 어린이집 폐원 위기… 10년 새 절반만 남았다.”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2221636001#c2b>. (검색일 2024. 2. 23.)
- 국가법령정보센터. 영유아보육법 제18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0191&ancYnChk=0#0000>. (검색일 2024. 3. 12.)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4. 1. 9). “어린이집 0~2세 영아반에 최대 69만 6000원 ‘인센티브’ 지급.”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4584>. (검색일 2024. 3. 21.)
- 머니투데이 (2023. 5. 8). “어린이집 1만곳 폐업… 커지는 저출산 충격.”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50722034950122>. (검색일 2024. 2. 23.)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2023. 11. 29). “‘동행어린이집’으로 폐원 위기 어린이집 지원한다.”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557992>. (검색일 2024. 3. 21.)
- KBS 뉴스 (2023. 2. 24). “잇단 어린이집 폐원에 부모 한숨… “이러니 안 낫죠.””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612334>. (검색일 2024. 4. 12.)

기독교 신앙을 가진 어린이집 원장의 폐원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A Qualitative Study of the Closing Experiences of Christian Childcare Center Directors

김 성 원 (총신대학교)

논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어린이집 폐원을 경험한 기독교인 원장을 대상으로 교육자로서의 소명의 의미를 파악하여 관련 분야에 제언하기 위함이다.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 면담 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 어린이집 폐원 경험을 한 기독교인 원장 8명과 면담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참여자들의 운영 철학 및 원리는 몸과 마음이 건강하도록 지원하기, 건강한 인성의 형성,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는 어린이로 양육하는 것이었다. 원장들은 교사다움을 유지하고 어린이집이나 원장에 대한 불평을 금하는 교사 원칙도 제시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특성화 프로그램도 발견되었는데, 기독교교육 실천, 부모교육 및 상담, 영어교육·성경교육·유아교육의 동시 실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에 원비나 특강비 면제 등이며, 따뜻한 돌봄을 실천한 사례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실천을 통하여 부모들의 인정을 받는 어린이집, 불신자의 구원, 부족한 정원 수의 충원, 졸업생의 방문을 받는 결과가 나타났다. 폐원의 원인은 운영난, 아동학대 신고, 보육·기독교교육의 본질에서 벗어난 현장, 재개발로 인한 이전 실패, 임대료 인상, 어린이집 두 개 운영자를 타켓으로 한 평가의 어려움 등으로 나타났다. 폐원을 경험한 원장들의 진로는 주간보호센터 운영 희망, 원예치료사로 이직, 월급 원장으로 취업, 2개소 운영에서 1개소 운영 등이었고, 재취업 과정에서 연령의 한계를 경험했다는 연구참여 자들도 있었다. 폐원의 의미는 하나님의 돌보심·훈련·복 경험, 새로운 소명 발견, 인도하심 대로 따르는 훈련, 쉼 등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기초로 연구자는 어린이집 폐원에 관한 사회적 관심, 원 장들을 대상으로 직업적성 검사 실시,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으로서의 경력과 연계된 직업으로의 이 직 가능성이 확대되기를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기독교 유관기관에서 고난에 대한 교육과 유형별 고 난 극복 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주제어: 기독교 신앙, 어린이집 원장, 어린이집 폐원, 면담